

영숙 미자 경주 정희 왔다감

김금희

소설가

영숙을 포함해 네 사람 모두 오랫동안 이 도시에 살았지만 납골당은 처음이었다. 큰 시장이 있어 지나만 다녔을 뿐이었다. 그런 곳과 자신들이 상관있으리라고는 상상이 잘 안 갔다. 그건 저마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자주 떠올리고 연연해하는 건 젊은 애들 같았다. 영숙은 이따금 손녀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그건 너무 어둡고 슬프고 차고 늘 어딘가 죽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유행이니?” 하고 영숙이 물으면 “아니, 내 자작곡. 할머니가 처음 들었어.” 하고 손녀는 대답했다. 어느 날은 너무 젊어서 어려서,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떨어져 내리는구나 싶었지만 어느 날은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 뒷배가 못 되는 부모라니. 일흔이 다 되도록 손에 일을 놓지 않는데도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고약한 마술에 걸린 것처럼 벌었다고,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것들은 늘 어딘가로 흘러가버렸다.

“그냥 가서 이름 대면 되겠지 뭐.”

경주가 그렇게 말하며 일단 올라가자고 했다. 큰 공원을 끼고 있는 납골당은 올라가는 길도 산책길 같았다. 개망초가 피어 있고 붉고 흰 철쭉들도 환하게 울타리를 밝혔다. 그걸 보느라 네 사람은 걸음이 늦어졌고 정희가 “이 좋은 걸 추진만 못 봐서 어떡해.” 하는 바람에 또 길을 오르지 못했다.

추진은 본명이 아니라 친구가 일했던 보험회사 이름이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자식들 이름으로 부르듯, 추진은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 이름으로 불렸다. 추진에게도 다 큰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함께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 사람은 한동네에 살며 친해진 삼십 년 지기 친구들이었고 추진은 나중

에 가까워진 친구였다. 아마 보험설계사인 추진을 누군가가 소개해서 만나게 됐을 텐데 그 세월도 이십 년 가까이였다.

만나보니 추진의 남편은 전신마비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추진은 보험이 아니었다면 남편 병원비로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 보험을 들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추진이 아픈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것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남편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가곤 했다. 체격이 큰 사람을 일으켜 꺼안다시피 해야 하는 터라 정부에서 간병인을 보내줘도 못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간병인이 자꾸 그만둔다고. 힘들어도 추진은 남편을 무척 아꼈다. 뇌졸중이 일어난 날, 병원에 빨리 못 데려가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자책했다.

추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은 아파도 이제 추진이 몸은 편하겠지, 하고 친구들은 생각했다. 애달프고 슬픈 일이지만 긴 병 환자가 떠나면 남은 사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데 그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추진이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릴 때라 부고도 늦게 전해졌다. 다른 친구들은 죽기 몇 달 전에 만나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못 나갔던 영숙은 정말 문자 몇 줄로 추진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낙담한 영숙은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다.

납골당 건물은 공원의 가장 안쪽에 있었다. 네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안내 카운터가 텅 비어 있었다. 경비에게 물어보니 한 시가 되어야 직원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다.

“어마, 한 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정희가 놀라 물었다.

“우리 그냥 납골당 번호만 알면 되는데 죽은 친구가 이경자예요. 이경자.”

경주가 그렇게 도왔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린 티가 역력히 나는 경비는 난감해하며 자신은 명부가 든 컴퓨터를 다룰 수 없다고 했다. 자기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야, 그러게 내가 밥 먹고 오자고 그랬잖나.”

아까 공원 입구 갈비집을 가리키며 먼저 점심을 먹자고 했던 미자가 세 사람을 약간 타박했다. 낭패감이 들었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 네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나무 벤치에 앉았다. 흰꽃가루가 동동 떠다니는 정오의 풍경은 아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오늘 애들 온다고 해서 장을 좀 봐야 하는데.”

정희가 그렇게 말하자, 경주가 메시지를 확인하며 오늘 딸이 나이트 근무라 얼른 가봐야 하는데, 하고 걱정했다. 영숙은 오늘 월차를 내고 청소일을 나가지 않았지만 면접 간 손녀가 걱정

이었다. 노래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나라에서 무슨 지원을 하는데 그게 되면 친구들과 무대를 꾸며볼 수 있다고 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게 자꾸자꾸 돼야 이름도 나고 그렇겠네.”

영숙이 말하자 손녀는 모처럼 활기 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이라도 어때, 할머니.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나 정말 좋겠다.”

“애들아, 저기 나비 보라.”

자기 말을 안 들은 친구들에게 좀 화가 나 있던 미자가 느릅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정말 노랑고 하얀 나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팔랑팔랑 날고 있었다.

“에고, 추진아.”

경주가 불렀고 네 사람은 또다시 슬픔에 빠졌다.

“남편 가고 이제 좀 편할까 했는데 아픈 남편 거기서도 아플까봐 따라갔니? 응?”

한시가 되자 안내데스크가 다시 열렸고 네 사람은 거기 서서 추진의 이름을 댔다.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 명부에 이경자가 구십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이곳에만 죽은 이경자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안내직원은 남편 이름을 알면 번호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합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추진의 남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헛걸음인가 싶으면서 기운이 빠지는데 경주가 추진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보험설계사를 생각해냈다. 그가 추진의 아들에게 연락해 겨우 납골당 번호를 알아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아들한테 엄마 어딴냐고 물어볼걸.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지.” 미자가 말하자 경주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지.” 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으면서도 유골함 앞에서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추진아, 우리 왔다.”

미자가 손을 흔들며 말하자 다른 세 사람도 어색하게 손인사를 했다. 그리고 각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기에 왔었다고 남기는 건가봐.”

정희가 납골당 앞 작은 노트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할머니 편히 쉬세요’

크게 크게 그림처럼 그린 글씨는 추진의 손자가 쓴 인사였다.

‘엄마 예리가 둘째 가졌어요. 우리는 걱정 말아요’

가장 최근에 적힌 소식은 새로운 식구에 관한 것이었다. 네 사람은 둘째아들이 아이를 또 가진 모양이라며 기뻐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쓰고 가자.”

경주가 말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정작 아무도 볼펜을 들지 않았다. 서로 네가 쓰라며 미뤘고 영숙도 마다했다. 그렇게 10분을 실랑이하다 이윽고 미자가 “야, 배고파 죽겠다.” 하며 볼펜을 잡았다. 그리고 수첩에다가 ‘은정, 동현, 지ㅎ……’ 이렇게 평소에 부르는 아이들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영숙이 “아니 왜, 애들 이름을 여기다 적어?” 하고 다급하게 팔을 잡았다.

“응?”

미자가 당황해서 손을 멈췄다.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도 여기에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우리 이름 놔두고 왜 애들 이름을 여기 남겨?”

그러자 경주와 정희도 놀라 애들 이름을 지우자고 했다. 거기에는 친구의 죽음 앞에 뒤흔치고 가지런하게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싶은 마음과, 이런 슬픔과 상실에 아이들 이름을 남겨놓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거리낌, 그 오래고 절대적인 보호의 제스처가 함께 들어 있었다. 냇은 자신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고 미자는 그걸 다 적고는 “왔다감”이라고 마무리했다.

납골당을 나온 네 사람은 다시 공원길을 걸어 내려왔다. 그들 중 추진만 운전할 수 있어서 그 차를 몰고 다같이 산정호수에 놀러 갔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 차가 무척 막혀서 추진이 거의 네 시간이나 운전대를 잡아야 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것이. 옆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예쁘다 고맙다 해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던 것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동안 사이가 서먹할 정도였던 그 호수행이 너무 먼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런 다툼과 화해가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무심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이렇게 훌쩍 한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것이. 사는 건 너무 아득하고 늘 해독할 수 없는 어떤 표정 같은 일이었다.

이윽고 식당에 도착해 네 사람은 연기를 푹푹 내며 고기를 구웠다. 자식 얘기, 손주 얘기, 월급 받는 얘기, 장사 안 되는 얘기, 집값 오른 얘기, 가족들 누군가가 집을 산 얘기, 판 얘기. 늘 하는 데도 늘 채워지는 얘기들이 테이블 위로 차려졌다. 미자가 가게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

“어렵다고 받았는데 쓰면 어떡해?”

경주가 그래도 고맙다며 씹을 싸서 미자에게 건넸다.

“내가 싸야 이 식당 사장이 안 어려울 거 아녀.”

미자가 카운터에서 잔뜩 인상을 쓴 채 뉴스를 보고 있는 남자 사장을 가리켰다. 네 사람은

땀은 그렇다고 킁킁 웃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은 다 버스를 타고 가고 영숙 혼자 집으로 걷는데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 내렸다. 딱히 슬픔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처럼 맘 편하게 친구들을 만났던 기쁨과 흥분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보낸 추진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홀가분함과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노곤해진 몸을 뚫고 나오는 이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대상들을 향한 가엾음과 애달픔 같은 것. 아이들 어릴 때 혼자 식용유 공장에 가서 일할 때 녀녔녔 지는 해를 보다가 왈각 그 어린 것들이 자기들끼리 잘 있나 싶어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을 환기하는 어떤 회한 같은 것이. 마스크 안까지 젖어드는 눈물을 내버려두다가 영숙은 이내 신호등 앞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잘 닦았고 손녀에게 “나라 면접은 잘 끝났니?”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추스른 마음으로 글자 옆의 ‘1’자가 지워지고 반가운 답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끝>